

미국 프로풋볼(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하인즈 워드(사진 오른쪽)가 19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하인즈 필드에서 열린 아메리칸 콘퍼런스(AFC) 결승전에서 불티모어 레이브스의 수비수를 따돌리고 전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워드, 3년만에 슈퍼볼 진출

피츠버그, NFL 챔피언 결정전서 불티모어에 9점차 승리

미국 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즈 워드(32)가 뛰는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3년 만에 슈퍼볼에 진출했다.

피츠버그는 19일(이하 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하인즈 필드에서 열린 아메리칸 콘퍼런스(AFC) 결승전에서 트로이 폴리알루와 산토니오 홉스가 더치다운을 기록하는 활약에 힘입어 라이벌 불티모어 레이브스를 23-14로 꺾고 슈퍼볼 무대에 진출했다.

전반 피츠버그의 상승세를 이끈 것은 워드였다.

와이드 리시버 워드는 1쿼터 초반 퀼터백 벤 로슬리스버거의 패스를 받아 뒤 방향을 바꾸어가며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면서 45야드를 전진하는 활약을 펼쳤다.

워드의 전진에 힘입어 제프 리드는 3점짜리 필드 골을 성공시키며 3-0으로 앞서갔다.

그러나 워드는 1쿼터 6분가량은 남겨두고 패스를 받아 상대 키퍼에게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면서 45야드를 전진하는 활약을 펼쳤다.

내셔널 콘퍼런스(NFC) 결승전에서는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과 함께 필리델피아 이글스를 꺾으면서 슈퍼볼에 진출했다.

애리조나는 1948년 시카고 카디널스가 필리델피아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면서 NFL 챔피언이 된 후 61년만에 슈퍼볼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워드는 2쿼터에 다시 들어와 한 번 더 패

스를 받으면서 이날 총 3번 패스를 받아 55야드를 전진했으나 이내 다시 교체돼 나가면서 더 이상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워드가 빠진 피츠버그는 산토니오 홉스의 터치다운과 제프 리드의 필드골로 4쿼터 초반 16-7까지 앞서 갔으나 불티모어의 러닝백 윌리스 맥가히에게 2번째 터치다운을 허용하면서 16-14까지 주격을 담했다.

그러나 피츠버그 트로이 폴리알루가 상대팀 퀼터백 플래코가 던진 공을 가로채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23-14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피츠버그의 주전 와이드 리시버인 워드는 부상회복 여부에 따라 2006년 슈퍼볼에서 최우수 선수(MVP)로 뽑힌 뒤 3년 만에 슈퍼볼 무대를 밟게 될 전망이다.

내셔널 콘퍼런스(NFC) 결승전에서는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과 함께 필리델피아 이글스를 꺾으면서 슈퍼볼에 진출했다.

애리조나는 1948년 시카고 카디널스가 필리델피아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면서 NFL 챔피언이 된 후 61년만에 슈퍼볼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워드는 2쿼터에 다시 들어와 한 번 더 패

## “언제까지 계속 실험만 할 수 없다” 허정무號 ‘옥석 가리기’ 돌입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 테스트만 할 수는 없다.”

새해 첫 소집 훈련 중인 축구대표팀이 1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솔실대와 연습경기(4-0 승)는 ‘허심(許心)’을 염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대표팀은 다음 달 11일 이란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원정 4차전을 앞두고 지난 10일 소집돼 서귀포에 캠프를 차렸다. 지난주 시즌 종료 후 휴식을 취하다 모인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데 할애됐다.

15일 광운대, 16일 실업팀 고양 국민은행과 두 차례 연습경기에서도 대부분의 선수를 투입하며 컨디션을 살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다르다. 24일 해산되기 전까지 허정무 대표팀 감독의 눈이 들지 못하는 맵버는 이런 원정에 따라나설 수 없다. 솔실대와 연습경기에서도 허 감독의 구상은 잘 드러났다.

현재 대표팀에는 생애 처음으로 국가 대표로 뽑혔던 공격수 김동천(경남)이 발목 염좌로 18일 소속팀으로 돌아가 22명이 훈련 중이다.

허정무 감독은 이날 4-4-2 포메이션에서 이근호(대구)와 정성훈(부산)을 최전방 투톱에 세우고 좌·우 미드필더에 염기훈(울산)과 이첨용, 중앙에 기성용과 한태유(이상 서울)를 선발로 내세웠다.

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김치우(서울)·이정수(교토)·조용형(제주)·최효진(포항)으로 꾸렸고, 골문은 이운재(수원)가 지켰다.

허 감독은 후반 시작하며 골키퍼 이운재 대신 정성룡(성남), 염기훈 대신 중앙 수비수 강민수(전북)를 투입했다. 이후



축구대표팀 허정무 감독이 19일 낮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솔실대와의 연습경기 전반전이 끝난 뒤 전반전 상황을 분석하여 작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조국(서울)과 하대성(대구), 김창수(부산), 임유환(전북)이 차례로 들어갔지만 큰 틀의 변화는 주지 않았다. 경기 후 허 감독은 “일주 동안 몸 상태를 체크했는데 나름대로 좋은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영 아닌 선수들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컨디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은 힘들다.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면서 “두바이에서 두 차례 친선경기 이후에는 더 이상 실전이 없다. 지금부터 실전 위주로 가면서 조직력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표팀 연습경기 첫 승…이근호 활약, 솔실대에 4-0

새해 첫 소집 훈련 중인 축구대표팀이 세 번째 연습경기 만에 첫 승리를 거뒀다.

대표팀은 1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솔실대와 연습경기에서 이근호(대구)

가 두 골을 뽑고 이첨용(서울)과 정성훈(부산)이 한 골씩 보태 4-0으로 이겼다. 다음 달 11일 이란과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원정 4차전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소집훈련에 들어간 대표팀이 올해 연습경기에서 거둔 첫 승이다.

대표팀은 앞서 15일 광운대, 16일 실업팀 고양 국민은행과 두 차례 연습경기에서 모두 1-1로 비겼다.

/연합뉴스

## 프로축구 전남, 정윤성·김승현 영입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경남의 정윤성과 부산의 김승현을 영입해 공격력 강화에 나섰다.

전남은 19일 공격력 강화와 중원 안정화를 위해 정윤성(FW)과 김승현(MF)을 영입했다.

‘옹광로 축구’를 표방하는 전남은 안효연에 이어 골 결정력을 가진 정윤성과 김승현을 잇달아 영입하면서 2009시즌 공격전선을 새로 가다듬게 됐다.

2003년 수원에 입단한 정윤성은 184cm 74kg로 광주-경남을 거쳐 전남으로 이적하게 됐으며, 통산 87경기에 출장해 14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중이다.

2002년 전남에 입단해 2006, 2007년 팀의 FA컵 우승을 이끌었던 김승현(182cm 73kg)은 2008년 부산으로 이적한 지 1년만에 친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총 88경기에 출장한 김승현은 11득점 4어시스트의 기록을 보유한 공격적인 미드필더이다.



19일 전남 유니폼을 입게 된 정윤성(사진 왼쪽)과 김승현(사진 오른쪽)이 이건수 사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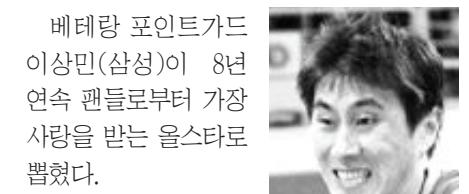
/전남 드래곤즈 제공

총 88경기에 출장한 김승현은 11득점 4어시스트의 기록을 보유한 공격적인 미드필더이다.

/김여울기자 wool@

## 프로농구 이상민 ‘왕별’

8년연속 올스타 최다득점



베�테랑 포인트ガード 이상민(삼성)이 8년 연속 팬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올스타로 뽑혔다.

이상민은 KBL이 19일 발표한 2008-2009 동부구단리그 프로농구 올스타전 베스트 5 팬 투표 최종 집계에서 총 11만3천29표 중 4만 5천708표를 얻어 2001-2002시즌부터 8년 연속 최다 득표 영예를 안았다.

올스타 팬 투표가 처음 시작된 첫해부터 가장 인기 있는 올스타로 뽑히면서 8년간 한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아 ‘영원한 오빠’로서 변함없는 인기를 입증했다.

## 궁도協, 조종성 회장 연임

대한궁도협회는 19일 소피렐엠배서더 호텔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조종성(67)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4년간 궁도협회를 이끌고 갈 조종성은 한국청년회의소 종합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단법인 팍스코리아나21 이사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 “호날두 절대 안 팔아”

매우 퍼거슨 감독 강조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 ‘국제축구연맹’을 해의 선수’로 뽑힌 호날두(24)를 절대 팔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퍼거슨 감독은 19일(한국시간) 영국 ‘데일리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카카(AC밀란)가 1억700만파운드(약 2천160억원)의 가치가 있다면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수”라며 “호날두는 메시와 카카를 치고자 월드컵 올해의 선수로 뽑힌 만큼 1억2천만 파운드 이상의 값 어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퍼거슨 감독의 이런 발언은 최근 언론을 통해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호날두 영입을 위해 1억1천500만 파운드(약 2천32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는 보도가 다시 불거져 나오면서 ‘호날두 이적불가’ 방침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20일(화)

▲FIS 스노보드 세계선수권 (15 : 05 : MBC)

▲프로농구 <전자랜드 : KT&G>(18 : 50 : SBS스포츠·Xports·MBCESPN)

<b>개업·성업 안내</b>	<b>목우촌</b>	<b>자연마을</b>	<b>페리카나치킨(두암점)</b>	<b>TOP-KOREA</b>	<b>신세계EXPRESS</b>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동구 서석동 동구청영 KT, 동광주지점 앞 한우고기, 돼지고기, 염금굴비, 쌀전문 대표 박상철 ☎(062)222-5629	북구 일곡동 일신중옆 두통, 관절염, 요통, 디스크, 손발저림 생선조림류, 서대화목침, 생선구이정식 ☎(062)576-8777	북구 두암동 주공2단지 상가2층 암남치킨, 후라이드치킨, 페리윙, 매운맛 매운맛양념치킨, 매운맛후라이드 생맥주매兜 ☎(062)267-0078	서구 매월동 풍암자동차매2단지 정문앞 승용, 상용, 건설기계 전문캐피탈 대표 정상호 ☎(062)651-1383-4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맞은편 포장이사, 일반이사 전문업체 대표 최성진 ☎(062)261-2479
<b>청운회관</b>	<b>대오회관</b>	<b>서대나라</b>	<b>현헤어스케치</b>	<b>조은생활</b>	<b>생리멘모리</b>
영암군 서남리 지적공사앞 장어정식, 장어구이, 장어탕, 산낙지 단체피로연 계모임환영 ☎(061)471-5775	동구 수기동 광주 관광호텔앞 생삼겹살, 양념삼겹살, 한식부페전문 대표 조은정 ☎(062)232-2750	북구 두암동 시외버스정류장뒤 먹자골목 매생이탕, 갈치조림, 장어탕, 병치조림 비단장어구이, 서대무침전문단체에 악손님한영 ☎(062)251-1100	남구 암립동 사직도서관과 김밥나라사이 팜, 염색 3만원이상이용시 10만원회화점 상품권 컷트시 1만원 문화상품권증정 ☎(062)674-3162	서구 매월동 산업용재 유통단지8-8동130-1호 천원강천연방향제, 세집증후군제제, 천환경청소제거, 세정기, 환기제, 환기제 ☎(010)2016-0162	동구 광산동 구시청4거리 일본식 정통 선술집 대표 심현수 ☎(062)430-3114
<b>임꼬시퍼</b>	<b>키즈영어학원</b>	<b>장가게</b>	<b>장수추어탕</b>	<b>(주)K모터스</b>	<b>풀잎문화센타</b>
담양군 천변리 센터서점앞 남성복, 여성복, 수입보세, 최신유형 친절봉사 저렴한가격 ☎(061)381-7393	서구 회정동 광주은행 염주지점4거리 영재유치원, 초등학교, 서학관, 각반수정원제 선착순접수 전화접수도 가능 ☎(062)222-5629	북구 일곡동 일신중옆 중국 황실요리 전문점 대표 서석만 ☎(062)576-4749	북구 두암동 주공2단지 상가2층 20년전통추어탕+반찬+공기밥 사무실 병원, 주택, 학교 전화주문서 신속배달 ☎(062)264-8540	서구 매월동 풍암자동차매2단지 정문앞 수입차동차 전문취급점 각종 수입차량 매입 및 판매 ☎(011)608-2510	동구 봉선동 봉선초등학교 정문앞 4거리 2층 수제화, 티셔츠, 정밀묘사, 상상학, 디자인, 종이접기 만들기, 유치부, 초등, 중등부, 예비반 수시모집 ☎(062)654-2385
<b>참 되</b>	<b>동구 궁동 구동구청뒤</b>	<b>참 되</b>	<b>물빛아트미술학원</b>	<b>참 되</b>	<b>참 되</b>
		</td			